

울산지역 자동차산업의 근무형태 변경과 지역사회 변화

2014년 3월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정봉(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전화: 02-393-1457 팩스: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siedit

울산지역 자동차산업의 근무형태 변경과 지역사회 변화¹⁾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정봉(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현대자동차는 2013년 3월 4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형태를 도입하였고, 이는 현대차에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산업 그리고 지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동반하였음. 근무형태가 변경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장과 지역사회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현대차의 경우 '10+10'근무에서 '8+9'근무로 변경되면서, 밤샘근무가 없어지고 노동시간이 단축됨. 하지만 생산성을 높여 물량을 보전하면서 임금보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신규 고용은 발생하지 않음. 교대제 전환이후 현대차 노사는 단축된 노동시간이 적극적인 여가 및 취미생활의 확대에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함.
- 현대차의 변경된 근무형태에서 교대조 간 근무시간의 간격이 없어지면서 회사 내 주차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현대차 내부 주차 공간과 연계 통행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조건에서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은 과거보다 지체되는 양상을 띠. 하지만 자전거 및 오토바이 이용 증가, 자가용 이용 감소, 회사 제공 차량 이용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남.
- 울산 북구 내 현대차 납품 자동차부품업체 총 29개 중 직서열 업체 11개가 현대차와 동일하게 근무형태를 변경하였음. 직서열 부품업체는 부품공급 방식 때문에 완성차의 근무형태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교대제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제도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남. 대표적인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여부였는데, 교대제 변경 사업장 중 50%의 사업장에서 임금이 감소하였고, 그 수준은 10% 였음.
- 부품업체 역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었고, 교대제 전환 사업장 11개 중 1개 업체만 인원이 충원되었는데, 그 인원 수는 5명에 불과함. 일부 사업장에서는 총 급여 삭감을 이유로 퇴사하는 직원들도 발생하

1) 이 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연구용역 의뢰로 진행된 『지역산업 근무형태 변경과 일자리 창출 방안연구』(2014, 2)에 기초해 작성되었음.

였음.

- 부품업체 역시 근무형태 변경 이후 교대제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수단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대부분 업체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자가용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지역상권의 변화는 일반음식점의 매출감소와 고용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조사대상 일반음식점의 매출액은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6% 감소하였고, 음식점의 종사인원은 2013년 2월 평균 3.8명에서 2013년 12월 2.9명으로 감소하여 동 기간에 조사대상 음식점의 종사인원은 286명에서 217명으로 69명이 감소하였음.
- 근무형태 변경 이후 지자체는 남성 직장인의 공공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시간대를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였음.

1. 도입

○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는 2013년 3월 4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형태를 도입하였고, 이는 현대차에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 산업 그리고 지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동반하였음.

- 현대차의 근무형태 변경이후 기아차 그리고 한국GM이 근무형태 변경에 합의하여 동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쌍용자동차는 2015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

- 현대차의 변화는 완성차 전체로 확산되었고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근무형태 변화를 강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울산 북구 소재 현대차 납품 부품업체 총 29개 중 11개가 2013년 3월(또는 9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부품업체들은 근무형태 변경(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

- 현대차의 근무형태 변경은 공장 내 변화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가정생활 및 여가·문화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큰 변화로 작용하고 있음.

○ 현대차의 근무형태가 '10+10'근무에서 '8+9'근무로 변경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주요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2. 근무형태 변경 이후 사업장 변화

○ 현대차의 근무형태 변경은 사업장 내 교대제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부품업체의 근무형태에도 영향을 미침. 이에 근무형태 변경 이후 사업장의 변화는 현대차와 부품업체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음.

1) 현대차

○ 2013년 3월 4일부터 도입된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형태는 1조가 오전 6시5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일하고, 2조가 오후 3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0분까지 근무를 함. 1조와 2조는 주(週)단위로 변경되며, 휴일근무(특근)는 변경된 근무형태의

1조와 2조의 근무시간과 동일함.

○ 현대차의 근무형태 변경은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지만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신규고용이 발생하지는 않음.

-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현대차 기술직 사원들의 노동시간은 연평균 약 230시간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갖지만, 물량보전과 임금보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교대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따른 인원충원이 없었음.

○ 현대차의 근무형태 변경은 근무시간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출퇴근 교통수단과 회사 내 주차에 영향을 주게 됨.

- 기존 근무형태에서 주간조는 오전 8시 출근 저녁 6시 50분 퇴근이고, 야간조는 저녁 9시 출근 다음날 8시 퇴근으로 교대조가 편성되었음. 하지만 변경된 근무형태에서 2조는 새벽 1시 30분에 퇴근을 하게 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게 됨.

- 또한 변경된 근무형태에서 교대조 간 근무시간의 간격이 없어지면서 회사 내 주차의 문제가 야기되고, 현대차 내부 주차 공간과 연계 통행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조건에서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은 과거보다 지체되는 양상을 띠.

- 이에 따라 현대차는 통근버스를 증설하과 회사 내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노동자들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대차 노사는 단축된 노동시간이 적극적인 여가 및 취미생활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함.

-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과정에서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를 신설하여 장기근속여행, 휴양소 등 기 운영 중인 복지제도 운영 시 실비 대응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서 노동자들이 여가생활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였음.

- 노동조합(현대차 지부)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생태문화학교를 개최하여 노동자들의 늘어난 여가시간이 생태적 생활 및 가족공동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황토집 짓기와 도시농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회사(현대차) 역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후 근로시간 단축 및 밤샘 근무 폐지가 근로자의 여가생활 확대와 자기개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여가선용 특강, 교육,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재직자의 역량증진을 위한 산학 위탁교육 협약을 울산과학대학교와 체결하여 근무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강의개설을 하였음.

2) 부품업체

○ 2013년 12월 말 기준 울산 북구 내 현대차 납품 자동차부품업체 총 29개 중 직서열 업체 11개가 현대차와 동일하게 근무형태를 변경하였음.

- 11개 사업장의 총 근로자 수는 3,345명이고, 이중 교대제 대상 인원은 2,177명으로 전체 인원의 63%에 해당함. 기업 규모를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3곳, 나머지 8곳은 중소기업임.

○ 직서열 부품업체는 부품공급 방식 때문에 완성차의 근무형태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교대제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제도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남.

- 대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여부임. 교대제를 변경한 부품업체 중 직원들의 임금이 증가한 곳은 1곳, 제도 변경 이전과 동일한 곳은 4곳, 감소한 곳은 5곳으로 나타남. 현대차의 경우 설비투자율과 UPH(unit per hour)를 높여 제도 변경 이전과 동일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았지만 부품업체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음.

- 다음으로 부품업체는 교대제 전환 과정에서 물량보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소 부품업체는 신규설비 투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UPH를 높여 물량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울산 북구 내 자동차 부품업체 중 근무형태가 변경된 11개 사업장의 변화는 세 가지 영역에서 두드러짐.

○ 첫째, 부품업체 역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것은 제한적임.

- 교대제 전환 사업장 11개 중 1개 업체만 인원이 충원되었고, 그 인원 수는 5명에 불과함. 이는 생산성 향상 및 노동강도 강화가 인력대체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임.

- 일부 사업장에서는 총 급여 삭감을 이유로 퇴사하는 직원들도 발생하고 있음.

○ 둘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여가생활에 대해 부품업체의 대응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11개 부품업체 중 7곳은 변화가 없고, 4곳은 동호회 활동비 지원, 탁구대 설치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완성차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마련된 반면 중소부품업체들은 이 부문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셋째, 출퇴근 교통수단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변경된 근무시간에 맞추기 위해 대부분 근로자 개인별로 해결하고 있음.
- 변경된 근무시간에 대응하기 위해 11개 부품업체 중 4곳은 회사 통근버스를 마련하였고, 7곳은 회사에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근로자 개인별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함.
- 부품사 노동자는 근무형태 변경 전 자가용 이용자가 절반 정도이고, 다음으로 회사제공 차량 이용자이고 나머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노동자는 10% 정도임. 근무형태 변경 이후 자가용 이용자는 48.5%에서 72.3%로 급격히 늘어났고, 회사제공 차량 이용자는 31.1%에서 17.0%로 감소하였음.
- 현대차 노동자의 경우 근무형태 변경 전 자전거 및 오토바이 이용자가 많고, 다음으로 자가용, 회사제공 차량(통근버스), 대중교통, 도보 순서를 보였으나, 근무시간 변경 이후 자전거 및 오토바이 이용 증가, 대중교통과 자가용 이용자 감소, 회사제공 차량 이용 증가를 보임.

<표 1> 현대차 및 부품사 노동자 출퇴근 교통수단 변화(단위: %)

	현대차			부품사		
	시행전	시행후	증감	시행전	시행후	증감
도보	12.5	12.8	0.3	8.7	3.6	-5.1
자전거, 오토바이, 기타	28.2	36.2	8	5	4.5	-0.5
대중교통	15.8	10.5	-5.3	6.6	2.7	-3.9
자가용(카풀 포함)	22.8	15.7	-7.1	48.5	72.3	23.8
회사제공 차량	20.7	24.7	4	31.1	17	-14.1
합계	100	100		100	100	

3. 근무형태 변경 이후 지역사회 변화

-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여가생활은 근무형태와 직접적으로 연동됨.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가사업무 및 생활 잡무에 대한 역할분담, 가족과의 공동 여가시간과 관계되기 때문에 가족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됨.
- 기업 내 근무형태 변화가 노동자 개인, 가족,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일정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고, 이는 기업 규모의 크기에 따라 편차를 보일 수 있음.

- 2013년 현대차 교대제 변경을 위한 시범실시 기간과 교대제 변경 초기에 근무형태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크게 가족관계, 여가생활, 지역상권으로 확인되었음. 울산 북구 내 현대자동차 및 부품업체의 근무형태 변경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각 영역별 변화는 다음과 같음.

1) 가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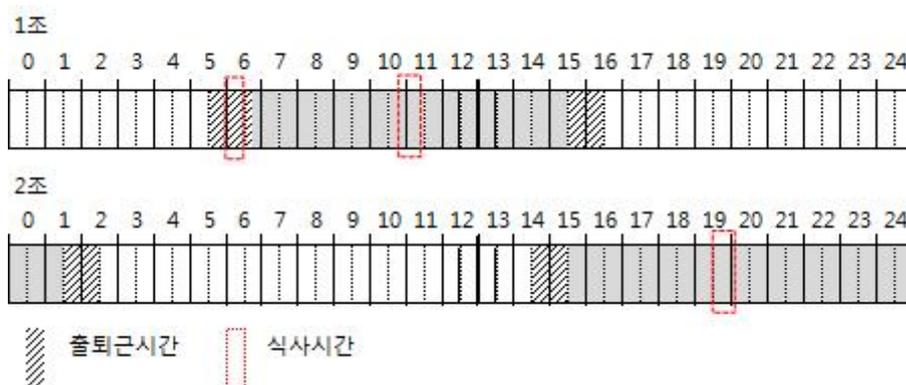
○ 근무형태 변경 이후 교대제 근무자의 여가시간은 현대차와 부품업체 노동자 모두 증가한 가운데 수면과 식사를 중심으로 가족 내 생활 상의 변화가 나타남.

○ 현재 1조 근무(06:50분 출근~15:30분 퇴근)는 과거 주간조 근무(08시 출근~18:50분 퇴근)에 비해 출근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취침시간 전후의 생활 변화가 이루어짐.

- 1조 근무의 경우 교대제 근무자가 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갖기 때문에 배우자는 저녁시간의 활용이 여의치 않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남편의 이른 출근 시간으로 인해 새벽시간 수면에 방해가 받게 되는데 이는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 배우자의 경우 더욱더 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²⁾.

- 남편의 2조 근무(15:30분 출근~01:30분 퇴근) 시 새벽에 퇴근이 이루어지는데, 여성 배우자는 남편을 기다리며 취침이 늦어지거나 수면 중에 방해가 받는 양상임.

[그림 1] 현대차 교대제 근무자 출퇴근 및 식사시간



2) 현대차 노동자는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편의 상 배우자를 여성으로 지칭하고자 함.

○ 현대차 근무형태 변경 이후 여성 배우자는 남편의 식사문제로 인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퇴근 후 다음 식사시간까지의 간격이 크기 때문임.

- 1조 근무(06:50분 출근~15:30분 퇴근)의 경우 교대제 노동자는 점심식사 시간이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으로 다소 이른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 배우자는 저녁식사 시간 전에 간식을 준비하면서 오후시간의 여가활동이나 개인적인 활동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2조 근무(15:30분 출근~01:30분 퇴근) 역시 퇴근 후 간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 여성 배우자는 야식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편 현대차 및 부품업차의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젊은 세대의 경우 남편의 육아 참여가 늘어남.

- 1조 근무(06:50분 출근~15:30분 퇴근) 때 오후에 퇴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놀아주는 등 자녀와 유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2) 지역상권

○ 근무형태의 변경은 해당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연동되어 생활패턴에 변화를 야기했고, 이에 따라 음식점³⁾, 여가관련 체육시설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

- 우선 2013년 1월 시범실시 기간과 교대제 변경이 시행된 초기 음식점의 매출 감소는 매우 크게 나타났고, 이는 현대차 근무시간 변경과 관련되어 출퇴근 시간 변경, 점심식사 시간 조정이 음식점 이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과거 주간조의 퇴근시간이 저녁 6시 50분이었지만 현재 1조의 퇴근시간은 오후 3시 30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녁 식사 및 동료들과의 회식이 줄었고, 야간조의 퇴근시간은 밤샘 노동을 하고 오전 8시이었던 반면 현재 2조의 퇴근시간은 새벽 1시 30분이어서 아침에 식당을 이용했던 근로자가 크게 줄었음. 한편 주간연속 2교대제가 실시됨에 따라 점심식사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40분으로 단축되어 현대차 교대제 노동자가 외부 식당을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음.

3)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음식점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음. 휴게음식점은 근무형태 변경 시행 전후 개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근 7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제외함.

○ 근무형태 변경 초기 음식점 사업주는 매출 감소에 매우 당황하였지만 시간이 경과하고 근로자들의 생활패턴이 안착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가졌음. 하지만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산업의 근무형태가 변경된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음식점의 영업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현대차 등 자동차업종의 교대제 변경 후 현대차 주변 및 주거지 인근의 음식점 영업실태는 교대제 변경을 위한 시범실시 기간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와 유사하게 매출이 감소함⁴⁾.

- 조사대상 일반음식점의 매출액은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6% 감소하였고, 북구 6개동(염포동, 양정동, 명촌동, 진장동, 호계동, 화봉동) 소재 일반음식점의 매출변화는 감소 사업장이 64곳(85.3%), 증가 사업장이 2곳(2.7%), 변화없음 사업장이 9곳(12.0%)으로 집계됨.

<표 2> 북구 일반음식점 지역별 매출 변화

		명촌	양정	염포	진장	호계	화봉	합계
음식점 매출변화 (개)	매출 감소	6	9	9	13	15	12	64
	매출 변화없음	3	0	0	2	2	2	9
	매출 증가	0	0	0	0	2	0	2
전년동월 대비 매출변화 (%)	평균	-23	-59	-37	-32	-28	-44	-36
	최소값	-70	-90	-90	-60	-80	-95	-95
	최대값	0	-20	-20	0	20	0	20

○ 북구 6개동의 음식점 매출감소에 따른 사업장의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사업주를 포함한 종사인원은 근무형태가 변경되기 이전인 2013년 2월 평균 3.8명에서 2013년 12월 2.9명으로 감소함.

- 조사대상 음식점의 종사인원 합계를 보면 동일한 기간에 286명에서 217명으로 69명이 감소하였음.

4) 울산 북구 내 일반음식점은 2013년 말 1,653개이고, 이 중에서 6개동(염포동, 양정동, 명촌동, 진장동, 호계동, 화봉동)의 음식점은 885개임. 지역산업 근무형태 변경 이후 북구 내 음식점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2013년 2월 조사와 동일하게 6개동에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전체 모집단의 22%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전화조사를 하였고, 응답률은 45.7%임.

<표 3> 북구 일반음식점 지역별 종사인원 변화

		명촌	양정	염포	진장	호계	화봉	합계
음식점 인원	감소	5	3	5	10	10	9	42
	증가	0	0	0	0	0	0	0
	변화없음	4	6	4	5	9	5	33
평균인원	2013년 2월	3.9	2.4	3.2	6.1	3.0	3.7	3.8
	2013년 12월	3.0	2.1	2.3	4.6	2.3	2.6	2.9
합계인원	2013년 2월	35	22	29	91	57	52	286
	2013년 12월	27	19	21	69	44	37	217

○ 교대제 변경에 따른 음식점의 총 영업시간은 변화가 없지만, 손님이 찾아오는 시간대가 바뀌어 개점과 폐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 현대차 인근 음식점의 경우 점심과 저녁 손님이 거의 없고 오후 3~5시 사이 손님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견됨.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전 개점-밤 폐점 시간을 오후 개점-새벽 폐점으로 영업시간대를 조정함.

○ 한편 북구 내 민간 체육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체력단련장은 16개에서 17개로, 당구장은 60개에서 67개로, 골프연습장은 68개에서 64개로 늘어남. 당구장과 골프연습장의 증가가 크고, 특히 효문동 내 민간체육시설의 증가가 두드러짐.

<표 4> 북구 체육시설업 변화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농소1동	2	2	10	11	5	6
농소2동	6	6	8	9	7	8
농소3동	2	3	3	4	11	12
강동동			2	2		
효문동	4	4	22	25	33	36
송정동	2	2	3	3	1	1
양정동			7	8	1	1
염포동			5	5		
합계	16	17	60	67	58	64

자료: 울산 북구청 내부자료

3) 지자체

○ 2012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북구 주민의 지역생활환경 만족도를 살펴보면, ‘체육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불만족의 비율이 52.1%이고, ‘공원, 휴양지 등 레저·여가시설’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53.4%로 나타나는 등 울산광역시 전체 평균에 비해 여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음.

- 이는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는 타 자치구에 비해 많지만, 박물관, 영화관 등 여전히 지역 내에 주요 문화시설이 부재하여 나타한 결과로 볼 수 있고, 더불어 체육시설에 있어서도 민간시설 중 체력단련장업체가 상대적으로 작고, 공공시설 중 체력단련시설의 수가 작은 것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근무형태 변경 이후 여가시간이 늘어날 경우 노동자들은 지자체 공공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자체는 노동자들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받았음.⁵⁾

<표 5> 여가시설이 늘어날 경우 선호하는 여가활동 공간(현대차 노동자)

	집	회사 편의시설	지자체 공공시설	일반 민간시설	기타	전체
시행전	14.5%	24.2%	37.1%	15.1%	9.2%	100.0%
시행후	16.8%	22.6%	28.8%	28.2%	3.6%	100.0%

자료: 1차 연구 설문조사 결과, 현대차 설문조사 결과

○ 울산 북구는 근무형태 변경을 경험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개인과 가족의 여가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었음.

- 우선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난 노동자들이 소극적 여가활동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성 직장인을 위한 기존 프로그램들의 신설 및 시간대 조정이 과제에 포함되었고, 특히 여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가설계 등에 대한 여가교육이 제시되었음.

- 이에 북구는 남성 직장인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시간대를 조정하여 지역산업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노동자와 기타 노동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음.

- 또한 일부 주민자치센터는 남성 직장인을 주된 참여대상으로 하여 태보교실, 스

5) 공공여가시설에 대한 선호가 줄어든 것은 이용접근성(accessibility)이 낮아서 발생한 변화로 보임.

트레칭수업을 개설하였으나 정원미달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도 나타나지만, 이 역시 남성 직장인의 공공여가시설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표 6>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간대	비고
농소1동	봉침과 건강	19:00~20:30	시간대 조정 (기존 14:00~15:00)
농소2동	밴드(기타, 드럼 등)	17:00	신설
	마을밴드	17:00	신설
농소3동	난타	16:00	신설
효문동	태보교실	17:00~18:00	정원 미달로 미개강
송정동	스트레칭		정원 미달로 미개강

○ 울산 북구는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노동자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크게 △ 작은도서관 운영 참여 독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주민자치위원 다양성 확보에 대한 과제도 검토하였음.

- 우선 작은도서관은 근무형태 변경 이후 남성 노동자가 자녀와 함께 이용할 뿐만 아니라 남성 노동자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의미를 가지나 현재 대부분 주부들이 자녀 양육시간 외에 근무를 하고 있어 남성노동자들의 참여가 어려움.

- 다음으로 북구 자원봉사센터는 기존부터 운영해 왔던 가족봉사단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18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봉사단(누리봄)을 발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음.

-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 다양성 확보를 위한 추진 사항은 기존 공개모집 방식을 지속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음.

4. 제언

○ 울산 북구 내 현대차와 부품업체의 근무형태 변경은 사업장 내에서의 변화와 함께 해당 노동자들의 생활상의 변화로 인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근무형태 변경이 각 영역별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일률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집단이나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적극적인 대책

이 요구됨.

○ 첫째, 현대차와 부품업체의 근무형태 변경 이후 일자리 창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장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대차와 11개 부품업체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순수한 일자리 창출이 5명에 불과한 것에 알 수 있듯이,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은 정(正)의 관계도 아니며 부(否)의 관계도 아님.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창출을 가져 온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먼저, 정부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꾸준한 근로감독이 요구 됨.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고용감소는 나타나지 않고 고용유지 및 창출로 이어짐. 생산성 향상의 능력이 높은 제조업 대기업의 경우 고용효과가 낮고,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적은 서비스 업종이나 제조업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음. 이런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근로감독과 계도 활동이 더 강화되어야 함.

- 둘째, 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노사의 타협이 요구됨.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에 성공한 사업장들은 단기적 비용과 임금의 관점에서 탈피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음.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아져,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면 초기 인력 채용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음. 초기 비용은 미래의 이윤창출을 위한 투자가 됨. 여기에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입장도 대단히 중요 함.

- 셋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함. 정부는 현재도 “교대제를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4조 이하) 교대제를 실시함에 따라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1~2년 간 기업규모에 따라 노동자 1명당 총 900만원~2,16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실근로시간단축제’를 통해 “사업계획서 상의 실근로시간 단축조치 시작일 이후 6개월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1년 간 노동자 1명당 총 720만원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동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며, 경영진들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 적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유인이 적다고 평가하고 있음.

- 넷째, 원청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요청됨.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 대-중소기업, 대기업-사내하청 관계의 정점에 위치한 대기업의 선도 기능 및 지도 역할이 필요 함. 장시간노동이 지배적인 자동차산업에서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전략을 구현할 때,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음. 원청기업이 중소기업체에 대한 공정개선, 품질개선 등 경영 지도를 하고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함.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임.

○ 둘째, 근무형태 변경 이후 울산 북구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감소와 고용감소가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 음식점업의 매출 증감(또는 고용의 증감)을 울산광역시 전체로 확대해 본다면, 북구가 아닌 여가시설이 밀집한 타 지역의 음식점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근무형태 변경 후 일부 지역(부문)의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울산 북구 내 음식점의 고용감소는 일차적으로 음식점의 영업상태의 결과로 작용한 것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음식점 노동의 공식성을 강화함으로써 음식점 종사자의 장기적 고용안정을 높일 수 있음.

-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2012년 2월부터 시범운영하여 2014년 현재 10인 미만사업장 및 월평균 임금이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를 지원하고 있음⁶⁾.

-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 사유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사회보험료를 단기적 비용으로 인식했었던 요인이 큰 것을 감안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근무형태 변경 이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음식점 사업주와 노동자, 그리고 향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6) 근로자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월평균 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1/2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운영 중인데, 자영업자 중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가입할 수 있음.

- 가입 대상 기준에서 개업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무형태 변경 이후 최근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로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근무형태 변경 및 노동시간 단축이 가속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자체(지방노동청 포함)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근무형태 변경 이후 노동자들의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여가확대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이 현재의 여가욕구를 초점으로 대책이 수립될 경우 소비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음. 여가활동의 다양성과 빈도가 커질수록 여가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해보면,⁷⁾ 다양한 유형의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근무형태 변경 이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여가시간 증대가 예상되는 노동자들은 스포츠참여활동과 관광활동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이는데, 개인의 여가욕구에 맞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이 중심이 될 경우 균형적 여가활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주거환경의 여가시설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재 거주하는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⁸⁾ 지자체에서는 근무형태가 변경된 노동자를 포함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기반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울산 북구는 남성 직장인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시간대를 조정하여 지역산업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노동자와 기타 노동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음.

- 울산 북구는 남성 직장인이 기존 공공여가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계속해서 확충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작은도서관 운영 참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주민자치위원 참여를 독려하는 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7) 남은영·최유정(2008),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격차: 여가유형과 여가 및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1권 제3호, pp. 57-84.

8) 신화경(2005), “지역사회 여가시설 개발을 위한 주 5일 근무자들의 여가행태 분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5호, pp. 181-190.